

“이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요”

전세버스업계 고사 위기 코로나19 직격탄에 ‘신음’ 팬데믹 이후 가동률 4~7% 작년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도내 전세버스 업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행 스케줄이 전무해 고사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차고지에 들어 찬 전세버스. 사진=한라일보 DB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 관광이 사라지면서 제주지역 관광·전세버스 업체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출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3월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업체는 52곳으로, 등록버스는 1801대(대형 1171대, 중형 630대), 운수종사자 수는 146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전세버스업체 대부분은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 등의 수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단체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1년 넘게 개점휴업상태다.

도내 전세버스 가동률을 보면 2016년 48.5%를 나타냈던 도내 전세버스 가동률은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

객이 줄어 28.5%로 급감했다. 이후 2018년에는 가동률이 30.9%, 2019년에는 35.6%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동률은 6.9%까지 내려갔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4.2%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등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

합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전세버스 계약 취소(피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재정적 지원, 국내 단체관광객 입도 시 인센티브 부여, 전세버스 운영비 지급방안 마련, 차량 연장(13→15년)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주 전세버스업은 자율감차 등 수급조절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객이 전면 취소되면서 현재 운

행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차량일부는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올해말쯤 되면 도내 전세버스업체 대부분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버스 경영 안정을 위해 차량 연장,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등 각종 행·재정지원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업계 등과 만나 경영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관광객 느니 렌터카 민원도 부쩍

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 쇄도 요금·환불·수리비용 대다수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지난 달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린 가운데, 이른바 ‘바가지 요금’, 환불 지연,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렌터카·숙박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 민원접수’란에는 5월 들어 렌터카 관련 민원 4건, 숙박업소 관련 1건이 올라왔다. 4월엔 렌터카 관련 19건, 숙박 관련 5건 등이 접수됐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코로나19 비수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극심수기 가격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 “자동차 수리비, 추가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렌터카 요금체계는 차종별 신고 요금 범위 내에서 비수기 할인 등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내 대여사업 평균 신고 요금은 1일 기준 경형(9만원), 소형(12만원), 중형(17만원), 대형(24만원), 승합(21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비수기의 경우 중형차 기준 대여요금이 2~3만원대(보험료 별도)였던 반면, 최근 이용객 증가로

주말에는 신고요금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에 따라 승합차보다 승용차 임차 수요가 많고, 중형차의 경우 신고요금의 50%가량인 8만~9만원(보험료 별도)으로 대개 책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과 관련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여부, 렌터카 이용 불편사항 신고 관련 자동차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적발시 과징금 부과(60만원) 및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부당 대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어린이집 식중독 의심증상 원생 70여명... 도 역학조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제주자치도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에서 운영 중인 A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9일 원아 1명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후 지난 2일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유증상자가 늘어 3일 기준 어린이집 원아 중 70여명과 직원 일부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3~4일 양일 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렸다.

도방역당국과 제주보건소는 역학조사에 착수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오는 10~11일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 식중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월·화요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중앙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알뜨르비행장 '파랑새'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입구에 설치된 최병근 작가의 대나무 조형물 '파랑새'를 배경으로 또 다른 제주를 만나고 있다. 이상국기자

피고인 정신감정 속전속결?

올해 처음 ‘정신감정인’이 조사 교도소 점진 등 통한 제한적 관찰 전문의 “정신감정은 장기 관찰 필요한 영역으로 실효성 우려”

제주에서 처음으로 감정인에 의한 ‘피고인 정신감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진행된 것인데, 자칫 형(刑)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정신감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료기관이 아닌 감정인이 진행했다. 감정인 자격은 국·공립병원과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전문의다.

통상 제주에서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요청할 경우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에서 2~3주간 관찰을 받는다. 이 곳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등이 있었는지를 판명, 재판부에 정신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는데, 만약 심신미약 등 장

애가 인정되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치료감호소는 물론 도내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감정 의뢰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제주지법이 처음으로 감정인에게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감정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외과나 내과, 신경과 등과는 달리 정신과 감정인은 장기간 대상자를 관찰한 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감정인의 경우 교도소 점진이나 병원 방문 등 제한적으로 관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정신감정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정신과 치료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인 관련은 현재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사건은 2018년 2건, 2019년 6건, 지난해 3건이다.

송은범기자

숲내음 산림조합 임산물 대표브랜드

산림조합

"숲에서 미래를 보다"

조합원과 함께 숲에서 성장하는 산림조합의 미래

산주와 임업인의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희망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입니다.

일반사업
산림경영지도·산림조사
모지관리대행·산림사업
면세유 지원·나무시장운영

목재집하장
삼나무 제품가공
삼나무 방부목
목재멜릿

임산물산자유동센터
임산물 수매, 유통
포고자육 공급

산림마트
임업장비 및 목초액 판매
포고버섯 중군 공급

신용사업
중소기업, 임업정책자금대출
농어촌진흥기금대출
SJ산림조합상조상품 판매

조합장 오형욱
이사 이용범·송복형·양상집·강승환·김동일·문승언·강유아·오경배
감사 성경관·강형걸

조합원 가입방법
자격조건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인
가입방법 주소지 또는 산림소재지 사업장 조합에 가입

sj 서귀포시산림조합
Seogwipo Forestry Cooperative

지도·사업 TEL. 064)766-4544 / 766-4541 FAX. 064)766-4599
상호금융 TEL. 064)732-7544 FAX. 064)733-7545
산림마트 TEL. 064)739-9544 FAX. 064)739-9545

목재집하장 TEL. 064)738-5101~2 FAX. 064)738-5104
유통 센터 TEL. 064)792-8544 FAX. 064)792-8545